

국세청, 강원권 21명 '핀셋 채용'...지역구분 모집 전격 시행

- 올해 9급 공채부터, '26.1.1. 포함 3개월 이상 강원도 주민등록자 응시 가능
- 2월 2일부터 원서 접수, 전국 단위 모집과 병행하여 지역 인재 발굴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, 올해 「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」부터 '강원권 지역 구분 모집'을 시행합니다.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,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됩니다.
- (추진 배경)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.
-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,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,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.
- 이에 국세청은 인사혁신처와 오랜 기간 긴밀히 협의한 끝에,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'지역 맞춤형 인재'를 별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- (응시 자격)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, 원서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

| 2026년 세무직 9급 공채 |

구분	(강원권) 지역구분 모집	전국단위 모집
선발 인원	21명	1,188명
응시 자격	'26.1.1.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 주민등록	주소지 제한 없음
배치 관서	강원도 내 7개 세무서*	전국 세무서
전보 제한	5년(타 지역 이동 제한)	없음

* 춘천, 홍천, 원주, 영월, 삼척, 강릉, 속초세무서

- (기대 효과) 국세청은 이번 ‘강원권 지역구분 모집’ 제도가 단순히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, 지역 사회와 수험생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
 -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제공됩니다.
 - 지역 특성과 현지 실정에 밝은 우수 인력이 장기 근무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국세청 세무직 9급 공채,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에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인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 이상원 (044-204-2240)
		담당자	사무관 전정은 (044-204-2192)